

정수장치 관리 및 소독의 실제

분당서울대학교병원

김 세 중

Quality Management of Dialysis Fluid

Sejoong Kim

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

말기신부전 환자의 증가와 더불어, 혈액투석센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더욱이 혈액투석여과를 이용하는 병원은 40%에 육박하고 있다. 이에 따른 투석용수의 수질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. 일반적으로 투석용수는 유입된 원수가 다층침전 필터, 연수기 (softner), 카본필터로 구성되는 전처리시설을 통과하여 일차 처리된 후 역삼투압 정수기를 통과하여 미량원소 및 내독소를 제거한다. 이 후 배관시스템을 통해 각 투석기로 배분한다. 정수의 각 단계별 기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화학적 혹은 미생물학적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, 이로 인한 빈혈이나 신경학적 증상, 급만성 염증반응 등 임상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, 주기적인 화학적, 미생물학적 검사를 통한 감시와 정수시설 및 배관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및 교환 주기 준수 등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. 미국, 유럽, 일본 등에서는 투석용수의 질관리를 표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료지침을 제시하고 있다.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질검사의 주기 및 항목에 대해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,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.